

Ted Hildebrandt 박사, 책 II의 찬양, 세션 4

찬양을 위한 부름

© 2024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이 바로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Dr. Ted Hildebrandt)와 시편 제2권에 나오는 하나님 찬양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찬양의 부르심, 찬양의 원인, 찬양하는 방법, 찬양의 내용, 찬양의 장소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42장부터 72장 중 2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찬양에 관한 네 번째 발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거에는 세 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경적인 맥락에서 시작했는데, 제2권 전체를 살펴보고 제2권의 시편 중 많은 부분이 애도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 다수는 다윗의 두 번째 모음집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모음집은 1권 1장부터 41장까지이고, 이것이 두 번째 모음집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이 엘로힘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엘로힘이 이전의 야훼라는 이름보다 더 선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14편을 시편 53편과 비교했는데, 이는 엘로힘 시편에 대한 변형을 거의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라의 아들들을 보았고 시편의 일부가 어떻게 다양한 표어와 주로 나타나는 상호 텍스트 관계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지 보았습니다. 1980년대에 시편 사이의 상호텍스트 관계를 시작한 Jerry Wilson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훌륭했고 지난 40년 동안 시편 연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시편의 세 글자로 가서 왕, 왕에게 간청하는 원수에게 공격을 받는 시편 기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왕은 시편 기사를 구출하고 적군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다가 지난 세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성전의 맥락, 제사, 그러한 사물과 행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찬양의 의례적 성격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2권의 많은 시편이 애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찬양의 근거로 애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그 탄식은 찬양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좀 더 까다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칭찬의 기초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 내용을 검토했고 이제 이번이 네 번째 세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실제로 2권에 나오는 실제 칭찬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찬양하라는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라는 부르심 직후에 종종 찬양할 이유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약기로, 우리 몸의 어떤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찬양의 자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현대 문화에 대한 찬양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러한 의미를 살펴보고 네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찬양의 부름에 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찬양하라는 부르심은 시편이 처음에 명령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 노래하거나 주님께 소리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일종의 명령이 되는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령형이나 명령형 방식으로 칭찬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만 보고 싶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많은 일들은 단지 찬양하라는 부르심, 찬양해야 할 이유, 찬양하는 방법, 찬양할 곳을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시편 2권의 본문을 통해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47장 1절을 찬양하도록 부르십시오. 모든 나라들이 손뼉을 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외쳐라. 따라서 두 가지 필수 사항은 박수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치는 것은 예배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만민들이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그래서 박수소리와 고함소리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하라는 이 부르심은 시편 47편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찬양의 부르심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시편 100편을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모두가 주님께 즐거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라는 이 부르심은 시편 100편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편 47편에서 봅니다. 두 번째 예는 시편 66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이 외침의 개념은 주님께 외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예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음 내용은 67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찬양하라는 요청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찬양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백성들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인클루시오와 같습니다. 예약된 일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찬양의 부르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시편 67편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며 만민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민족들을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주는 민족들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땅의 나라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셀라) 명상을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찬양하라는 부르심과 함께 이 구절 그룹의 시작과 끝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찬양에 대해 자기소개를 하는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와서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나는 당신의 의로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소리치거나 손뼉을 치는 것처럼 주님께 소리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적이며 자기 설명적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가서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럴게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시편 기자 자신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찬양하라는 부르심의 변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칭찬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칭찬에 대한 헌신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당신을 칭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양하라는 부르심과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일반적인 의미론적 영역에서 나는 와서 찬양에 대한 헌신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에 대한 헌신의 다음 절에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찬양 서약이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일은, 오랫동안 주님을 알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찬양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즉, 베트남에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 있었고 모두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진흙 속에 머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곤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만일 나를 살려 주시면 나도 이런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역시 그런 상황에 있었다. 특히 해병대였던 내 아들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있을 때,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28일 동안 연속으로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랬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서원은 61장 5절부터 8절까지, 시편 61편 5절부터 8절까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서원을 들으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의 기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왕의 수명을 그 세대를 위하여 늘려 주시며 그의 연수를 여러 대에 걸쳐 늘려 주소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게 하소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과 신실함을 지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즉 주께서 이 왕을 주시고 이 왕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나의 서원을 날마다 이루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양에 대한 서약과 같은 종류이며, 이는 찬양에 대한 헌신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겠다는 서원은 61장에서 왕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권 끝 부분에 있는 찬양은 거의 모든 책을 말했습니다. 시편에는 5권이 있고 오경이나 토라에는 5권이 있고 시편은 1권부터 41권까지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2에서 72를 보고 그 다음에는 73에서 89, 92, 기타 등을 봅니다. 끝까지 우리는 시편이 처음에는 더 많은 애도에서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별 시편에도 동일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책들의 각 끝 부분에는 1장부터 41장까지, 그리고 42장부터 72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찬양 또는 할렐루야와 이중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과 아멘, 이중 아멘.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중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두 번 하고 아멘을 두 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은 이 시편 72편을 18절에서 20절로 끝냅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시 칭찬해 주세요. 여기서 이중 칭찬을 반복합니다.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아멘. 이것이 2권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두 배의 찬양과 마지막에 두 배의 아멘으로 마무리되는 일종의 2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찬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찬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칭찬의 원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의 원인을 소개하는 동안,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약간의 연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어로 작업하면서 여러분은 그것이 반드시 큰 단어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연결 단어, 전치사 및 접속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이 찬양의 이유에서 우리는 핵심 절이라고 불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번역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라는 단어입니다. 핵심은 "for" 또는 "because"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어느 쪽으로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 칭찬할 이유와 근거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찬의 이유라고 합니다. 종종 찬양해야 할 이유가 찬양하라는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르짖으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면,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의 원인을 끌어내기 위해 이들 중 일부를 읽고 핵심 절, 핵심 for 또는 때문에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47장 1절과 2절에는 “만민들아 손뼉을 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하라는 부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필수 사항은 소리치고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열쇠, 즉 가장 높으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그를 칭찬합니까? 왜냐하면 그는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왕.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라는 왕의 비유가 다시 나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칭찬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굉장해요.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47장 1절과 2절의 예입니다.

시편 57편은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는 일종의 찬양에 대한 헌신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을 노래하겠습니다. 칭찬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칭찬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이행합니까? 난 이걸 할거야.

왜? 열쇠여, 당신의 사랑은 위대하여 하늘에 닿았나이다. 주의 신실하심이 하늘에 닿았사오니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YouTube에서 Great is Your Love에 대한 Matt Hoffland의 노래와 시편 57편을 음악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를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까다롭습니다. 때때로 히브리어를 보면 그들이 시를 쓸 때 이야기와 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을 펴고 손가락을 내려 창세기라고 말하면 성경은 텍스트를 열로 스캔하고 열은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모든 문단이 아래로 나열되어 있고 한 문단이 다른 문단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양쪽 모두에서 정당합니다.

즉, 서술형 열은 정사각형이고 이 열은 아래로 내려오면 정사각형입니다. 시작 단어와 끝 단어, 이것이 한 줄을 시작하고, 이것이 한 줄을 끝내고, 그 다음 문단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시에서 시는 문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 즉 한 줄의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펼쳐 보면 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이나 다른 곳에 있는 몇몇 선지자들, 잠언, 욥기로 가서 시를 써보면 각 줄이 여러 줄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줄을 깨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인.

시는 행에서 연까지의 구성에 함께 추가되는 단일 행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연은 시적인 단락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줄이 올 때 쌍콜론이라고 부르는 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 벗어나서 미안하지만 두 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시에는 같은 것을 말하는 두 줄, 즉 동의어 평행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고 절대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들은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정반대의 평행법을 부를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말할 때 동의어 평행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쌍콜론을 바꾸면 이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는 이런 일이 있고 악인에게는 이런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잠언에서 주로 두드러지는 이러한 상반되는 평행법을 대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이 의미론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기본적으로 합성 병렬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BC이고 ABC가 아닌 DEF입니다. 반복되는 ABC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시는 짧은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트위터와 비슷해요.

좋아요. 여러분 트위터 하시나요? 그런 은유를 사용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제 머리 속에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너무 많은 문자로 무언가를 써야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각 줄이 거의 일정한 길이가 되어야 하고 줄이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를 많이 썼다면 줄이 어느 정도 정렬되어 있지만 항상 정확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말을 아주 간략하게 해야 합니다. 각 단어는 소리나 의미에 따라 선택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각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반면 내러티브에서 내러티브는 횡설수설하고 계속하는 이 강의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는 아주 아주 잘 만들어졌으며 각 단어, 소리, 감각이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불필요한 단어가 없고 매우 잘리고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단어입니다. 축약형, 매우 축약형입니다. 예를 들어, 칭찬할 이유에는 일반적으로 key for,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 때문에 단어를 생략하고 때로는 동사도 생략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동사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줄의 동사를 사용하면 두 번째 줄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동사를 낮추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동사를 다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66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for"라는 단어를 생략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를 칭찬합니까? 어찌하여 백성의 소리가 그의 찬양을 듣게 되리이까? 그분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 주시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쇠는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즉, 거기에 열쇠가 빠져 있는데 서사에는 암시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칭찬의 이유이다.

그러므로 칭찬을 하게 하는 모든 원인이 그것을 촉발하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간결함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삭제하기도 합니다. 이제 66장 12절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올라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겪었으나 당신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묘사를 사용하여 칭찬의 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자들이 우리 머리 위로 올라타게 놔두었습니다. 우리는 구타당했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을 겪었습니다.

불과 물을 다루는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처럼 들리지만 당신은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갔으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칭찬할 이유, 칭찬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열쇠 없이도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특징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응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래서 이 일이 6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그의 시편인 시편 66편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더 칭찬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66부터 69, 70까지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찬송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2권은 많은 애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6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나는 거기에서 단어 소리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지막 것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들 중 더 많은 것을 살펴볼 때, 찬양하도록 부르십시오, 찬양하도록 부르십시오, 찬양하도록 부르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므로 그분께 외쳐라,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들 중 몇 가지에서 칭찬의 이유와 실제 칭찬 자체가 혼합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칭찬의 원인은 칭찬 그 자체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단지 이유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고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칭찬 그 자체네요. 그러므로 찬양하라는 부르심과 찬양하게 하라는 이 두 가지 범주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하나로 혼합됩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네 사랑이 생명보다 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의 일부입니다. 내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칭찬에 대한 헌신. 나는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찬양할 이유에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찬양하라는 부르심과 찬양하게 만드는 것 사이에 이러한 인지적 차이를 둡니다. 때로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의 원인은 사실 칭찬 그 자체이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섞일 때 그것은 일종의 깔끔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주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라는 부르심과 찬양해야 하는 원인을 for 또는 때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라는 부르심은 명령형인 주님께 외쳐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칭찬을 하는 걸까요? 찬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칭찬의 방법.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제가 토대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칭찬의 기초.

그리고 우리는 이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면 이에 대해 다시 다룰 것입니다. 찬양의 기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나는 그것이 그것을 포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풍부함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만함이 있고 그 충만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터져나옵니다.

시편 42장 4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영혼을 쏟아부으며 기쁨과 감사의 함성을 지르며 군중과 함께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던 일이 생각납니다. 기쁨과 감사.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는 즐겁습니다. 그는 행복해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고, 백성과 함께 아래로 내려와, 회중과 함께 축하하고, 그의 모든 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으며 이 충만함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보여드린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쌍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제단, 곧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개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때때로 기쁨과 즐거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것저것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함은 사람의 마음에 솟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말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이 일의 기초가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칭찬으로 터져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는 도덕적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는 도덕적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들 중 일부를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 중 일부는 이 점에 관해 여기에서 매우 표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편 50편 16절과 1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하나님에게는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율법을 암송하느냐고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나는 내 백성이 내 법을 밤낮으로 외우고 내 법을 묵상하는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시되 악인이 내 율법을 낭송할 때에는 그가 말씀하시되 악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율례를 낭송하며 내 언약을 네 입술에 두느냐? 그리고 그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입술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반이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나의 말을 너희 뒤로 던졌느니라.

따라서 도덕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며, 나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멋지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6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는 내가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찬양이 내 입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었다면 주님은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찬양의 일부는 주님께 소리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나 구원, 구조에 대한 인간의 신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있었고 이제 찬양은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마음에 죄를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듣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만한 도덕적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찬양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악은 실격입니다.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부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께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니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리로다. 그러므로 다시 보니 의로운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칭찬에는 이런 도덕적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기쁨이 있지만, 찬양에도 도덕적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기계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먼저 몸을 살펴보고 싶은데 몸, 우리 몸,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래서 신체 부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신체 부위와 신체 부위를 살펴보고 싶은 이유는 이 모든 찬양 시편을 읽으면서 특정 신체 부위와 찬양에 참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신체 부위에 대해서 먼저 시편 71편 23절과 24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71편, 23편, 24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늙어서 하나님이나 나를 늙어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71편과 72편은 위대한 왕인 솔로몬이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의 사라져가는 인물에 대한 일종의 반응입니다. 그런 다음 시편 72편의 힘은 열왕기상 1장과 2장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약하고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3장의 솔로몬에 대해서도 비슷한 유형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편 71편 23절부터 24절까지, 신체 부위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관련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칠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 내 허가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의로우신 행실을 종일 전하리이다. 나를 해치려던 자들이 부끄러움과 혼란을 당하였느니라.

원수와 그를 해치려 하는 자를 기억하라 그들은 수치와 혼란을 당하였느니라 그들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허가 주의 의로운 행위를 말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은 저를 위해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쫓아내시므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허가 주의 의로운 행위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과 허가 그 신체 부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15절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지은 위대한 회개의 시편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다시 관련된 입술과 내 입에 주목하십시오. 이번에는 허가 아니라 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들은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제공하는 대유법 또는 환유라고 부르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들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갑판에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단지 대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손이 갑판에 있다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갑판에 손을 얹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 보트에서 일하는 모든 개인 또는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그러면 내 입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선포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인데 거기에서 입과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흥미로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박수를 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47장 1절을 읽었을 때, 너희 모든 나라들이 손뼉을 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외쳐라.

그래서 손뼉을 치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말은, 칭찬하기에는 꽤 소란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칭찬하기에는 꽤 소란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읽고 있던 작가 중 한 명은 칭찬이 꽤 시끄럽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칭찬은 꽤 시끄럽습니다. 당신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조용했던 아주 엄격한 교회에서 자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모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좌석에서 몸부림치며 약간의 소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은 시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은 사실 시끄럽다. 활력이 넘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기는 싫지만, 이것은 끔찍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내와 내가 다녔던 학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쳤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합법적입니다.

녹음테이프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나는 오하이오 주 경기에 갔다. 내 아들은 그곳의 라크로스과 내 손자와 이번 오하이오 주 경기에 참가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 내내 오하이오 주, 오하이오 주가 승리하도록 외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앉으세요,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팀이 승리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게임을 통해 우리는 게임 전체를 서서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하이오 주에 대해 너무나 열정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쳤어요.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 정말 그럴 거야, 알았어.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고함소리와 박수소리 등에서 나오는 활기.

그래서 그는 손뼉을 치며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시편 63편 4절과 5절에 내가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입술로 맛있는 음식을 먹음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리니 내 입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치켜든 손을 생각할 때면 제가 일하는 고든 칼리지에서 일하는 동료가 생각납니다. 그는 이곳의 관제사이고 곧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아마도 다른 일을 하러 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Mike Ahern이고 저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예배에서 그를 지켜봤고 이 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하러 갈 때, 기도할 때마다 그것은 단지 줌일 뿐이고 그의 손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는 일은 마이크가 그 물건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손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고양됩니다. 그러므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입, 입술, 혀, 손, 박수, 고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찬양의 도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신체 부위를 넘어서는 찬양의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테니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나는 하프에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이제 하프를 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배꼽은 하프의 한 유형이고 킨노르는 다른 유형입니다. 이제 킨노르, 우리는 킨네렛에서 갈릴리 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는 하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일종의 하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킨노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배꼽, 즉 하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번역됩니다. 이제 조심하시면 됩니다.

하프와 하프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악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프와 하프를 번역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프인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을 여기에 올려 놓겠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천 단어를 절약합니다. 여기 하프가 보이고 팔이 하나 있는 것도 보입니다. 팔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하프입니다. 그들은 보통 하프이거나 배꼽이 킨노르보다 더 큼니다. 킨노르는 더 작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두 가지 모두 오늘날 수백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악기를 사용하는 하프 연주자를 보는 것처럼 서있는 하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앗시리아와 다른 곳에서 가져온 고대 근동 세계의 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크네요. 이게 더 크네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단일 팔 아래로 여기 아래의 소리 상자까지 더 많은 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운드 박스가 어떻게 비스듬히 들어오는지 보이시나요? 이것은 더 큰 하프입니다. 더 크고 더 크지만 여전히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현과 하나의 암과 큰 사운드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줄입니다. 둘 다 걷는 동안 연주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22절부터 24절에 “내가 수금과 배꼽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실하심을 수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맏소사.

내가 수금으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저 사람이 킨노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이 두 개의 동의어 병렬 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금으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더욱이 내가 수금으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 시입니다.

두 줄이 반복되는 바이콜론으로 표시됩니다. 하나는 ABC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꼽과 수금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오 나의 하느님,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제가 수금과 킨노르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여, 우리가 이전에 하던 일과 맞으니까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구속하신 나를 내가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칠 것입니다.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로우신 일을 전하리니 나를 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kinnor, 즉 배꼽입니다. 팔 하나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kinnor가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치기 소년 데이비드는 킨노르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팔이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두 개의 팔이 있고 공명판을 가로질러 옵니다. 거의 기타와 비슷하지만 팔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 막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막대가 가로질러 있는 두 개의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킨노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보면 어쨌거나 갈릴리 바다, 즉 킨노르(Kinnor)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인기가 많아요. 분명히 이것은 더 비싸고 의식적인 왕이 될 것입니다.

이건 양치기 소년이 들고 다니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지 볼 수 있고 거의 배낭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킨노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평행합니다, 하프와 킨노르. 둘 다 휴대 가능하며, 한 팔과 두 팔이 있으며, 그 중 하나에는 끈이 적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용되는 악기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47장 5절에 나오는 다음 악기는 시편 47편 5절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소리 가운데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거의 천국과 같습니다.

하늘에서도 외치는 일이 있을 것인가? 어쨌든 하나님은 기쁨의 함성 중에 오르셨고, 주님은 나팔 소리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형과 저는 트럼펫을 연주하곤 했고 힐데브란트 듀오, 일종의 듀엣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펫을 연주했어요.

그것은 황동 트럼펫입니다. 그들은 트럼펫 같은 것을 연주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쇼파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걸 녹음하는 사람을 마르코로 삼았어야 했어요. 나는 그의 녹화에 매우 감사한다. 그는 다음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습니다. 그에게 그것을 가져오도록 했어야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숫양의 뿔이에요. 숫양의 뿔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사려고 했던 것들, 나와 아내는 당시 가난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약 125 달러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정도 길이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들은 더 많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 안에 이런 비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반전이 있을수록, 그 중 일부는 25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정말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이름에 2/4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름답습니다. 쇼파르가 있는데, 그것은 숫양의 나팔인데 그들이 이 소리를 내면 소리가 나고 그것을 트럼펫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을 모으는 소리 같아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트럼펫을 연주했습니다. 저는 Child of Evangelism Fellowship에서 일했습니다.

Child of Evangelism Fellowship,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스타인브링 부인, 여기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어요. 그녀는 이 모든 아이들과 함께 전도자녀회와 함께 돌아다니는 일종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그 작은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딩, 딩, 딩, 동 노래를 부르는 트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스크림 트럭이 다가오고 동네 아이들이 모두 아이스크림을 사러 달려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불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 소리를 내며 돌아다닐 수 있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트럼펫을 들고 나가서 트럼펫 소리를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곡은 뭐라고 부르던가요? 나리아가라 폭포의 라살(LaSalle)에 있는 게토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 주택의 모든 아이들은 다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트럼펫 소리를 듣고 Steinbring 부인이 Child of Evangelism Fellowship을 위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나팔소리, 일종의 모임, 나팔소리, 전쟁에 대한 경고입니다. 종종 사이렌처럼 전쟁을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 말은, 아마도 저는 그것에 대한 은유 중 일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의 배음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와 백성을 회중으로 모으고 나팔 소리와 나팔과 양각 나팔을 불며 그렇다면 마지막은 소고나 탬버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탬버린을 들고 밖에 있고 기본적으로 가수들이 앞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68편 25절의 행렬을 묘사한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 앞에서, 그 뒤에 악사들이, 그들과 함께 소고를 치는 처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탬버린이 트럼펫, 수금, 하프, 트럼펫, 나팔과 함께 연주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도구입니다. 즉,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에게서 현대 악기, 기타, 기타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악기. 그리고 노래가 이 모든 것과 함께 가는 것을 주목하세요.

나는 노래에 대한 개념을 실제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주님께 노래를 부른다고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지 정말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악과 함께 하며, 음악은 다른 것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어머니가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를 앓고 계시고 약 15년 동안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 중 누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기 딸인 내 아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말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How Great Thou Art라는 노래를 연주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 노래를 틀거나 가족 중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와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연주하세요. 이제 세상을 떠난 남편조차도요.

그녀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How Great Thou Art를 플레이하고 그녀는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Amazing Grace를 플레이하면 그녀는 그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때로는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아름답습니다. 이 노래는 치매 환자도 그 노래를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영혼에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너무 깊어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특히 죽음이나 그와 비슷한 일이 다가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많은 경우 물을 것입니다.

노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께 노래를 부르고 찬송가 책을 가져오며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워지면 전화로 아버지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음악하고, 노래하고, 노래하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나는 그것을 특별히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꽤 분명합니다.

여기에 노래와 외침이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여기서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찬양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노래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리 지르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 중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65편, 실제로 한 번 내려가겠습니다. 응.

좋아요. 시편 65편 13절에는 초원이 양 떼로 덮여 있다고 했습니다. 계곡은 곡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있고, 초원은 양 떼로 덮여 있고, 계곡은 곡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소리치고 노래합니다. 누가 노래하나요? 초원과 계곡.

초원과 계곡을 의인화했다고 한다. 초원은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양 떼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계곡은 노래할 수 없다. 그곳이 곡식을 재배하는 곳인데도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기뻐서 소리 지르며 노래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전에 그것을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자연의 바로 그 요소들, 바로 그 자연의 요소들이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즉, 인간은 입과 입술과 혀를 사용하여 손을 높이 들거나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무생물의 세계도, 들판도, 계곡도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과 누가복음 19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나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바위들도 소리지르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위들도 부르짖을 것이며 심지어 자연까지도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피조물 자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무생물의 이런 종류의 의인화에 동참할 수 있으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칭찬해야 합니다.

계곡과 언덕처럼 그들은 죄로 인해 탄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자유, 출애굽 등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방법, 의인화, 그리고 군중의 축제는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찬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시편 68편 24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행차가 보이셨나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은 노래하는 자들 앞에서요 그 뒤에는 노래하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연주하는 처녀들이 있느니라 탬버린. 대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십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두 팀을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경기장 주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밖에 있고 실제로 수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렁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그들이 큰 회중 속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끄러워요. 그 소리가 나가서 너희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들을 수 있을 것이며, 군중의 절기가 다가오고, 회중에게 오는 행렬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질서 있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럼 찬양하는 방법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대회중과 성소로 들어가는 대회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68편 26절, 대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좋아요.

그리고 좋아, 성소로 이동합니다. 내가 한때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와 함께 다니면서 누구와 함께 즐거운 교제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행렬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동안 그 감미로운 교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소입니다. 이제 칭찬하는 방법. 노래하고 외치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큰 회중이 모이는 것 등등이 있을 뿐 아니라.

하지만 말하는 것의 개념도 있는데 그것은 나처럼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찬양을 말하거나 선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명확한 종류의 것입니다.

7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이다 그러나 내가 한량도 알지 못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가서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나는 당신의 의로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 입으로 당신이 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하신 일, 곧 당신의 의로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칭찬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며,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전능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 머리가 희어질지라도 이것이 시편 71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 하나님, 제가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제가 당신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선포할 때까지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늙어감에 따라 노인의 가장 위대한 점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그들이 본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나가서 청년부 후원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Buckhorn 주립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거기에 늪이 있었습니다. 늪은 아마도 50에이커에서 100에이커 정도일 것입니다. 50에이커 이상이면 100에이커에 가깝습니다. 갈대와 갈대가 가득한 거대한 늪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늪을 지나고 싶어하십니다. 그 중 한 명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콘택트렌즈, 네이트리의 콘택트렌즈가 늪에 빠집니다.

마치 신성한 소 같아요. 내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늪에 물건이 내려가면 내려가서 발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튀어나오고, 그들은 그것을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Nate에게 이것들이 지금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싸겠지만, 그 당시에는 최소한 몇 백 달러 정도로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네이트 연락처가 났고 아빠가 '알았어, 어두워지고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네이트, 너랑 내가 내일 다시 와서 찾아볼게.

그들은 집에 갔다. 뭐가 문제 야? 다음날 나와서 늪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아버지는 기도하셨습니다.

Nate와 그는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늪을 내려다보니 거기에 미친 콘택트렌즈가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와,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나는 그 늪에서 길을 잃을 것이고, 방금 떨어뜨렸을 때는 찾을 수 없었던 정확히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 후에 돌아와서 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 그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Nate Lee는 현재 뉴욕주 버팔로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적을 어찌 말해야 하겠으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주셨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사람은 뭐랄까,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공유하십니다. 그러니 어쨌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그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찬양의 장소,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더 빠르게 이동하고 싶습니다. 찬양의 장소에 대한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제단 둘째 책에 나오는 찬양을 살펴보던 중, 찬양이 행해진 어떤 곳에서는 계속해서 찬양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장소들을 최소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과 그분의 거룩한 산과 그분의 제단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42장과 43장에서 나옵니다.

즉,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여기에서 지형적, 지리적 또는 장소 참조를 확인하세요. 42장 4절에 내가 심령을 토하여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무리를 이끌고 행렬을 이끌고 어디로 가던가? 축제의 군중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43장은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는 시편 42편 3절과 4절과 평행합니다. 그들이 나를 안내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산,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산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갈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갈 때나 제단에 있을 때, 기쁨과 기쁨이 넘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모든 주제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16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6절,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거하셨던 시내산에서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큰 산인 시내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소까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 자신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당신은 신이 편재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특정 장소에 거하신다는 개념을 격하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전지전능함이 이 차별보다는 모든 것을 삼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까지의 이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정말로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특정 지리적 참조를 폄하하기 위해 전지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주의하세요. 시편 68편 16절, 오 험악한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려고 택하신 산, 하나님이 친히 영원히 거하실 왕권의 모티프를 시기하여 바라보나이까. 하나님의 병거는 수만, 수만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성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성소인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기차에 태우셨습니다.

신약성경 참조. 주 하나님이며 주께서 거기 거하시려고 사람에게서 곧 패역한 자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나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셀라. 그런 다음 68장 24절을 몇 절 아래로 내려가세요. 오 하나님이며, 당신의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성소로 들어가시는 행렬이 그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 앞에서 보였고 그 뒤에는 악사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소고를 치는 처녀들이 앞서 보았나이다.

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곳 성소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68편 35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 성소에서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성소에 두시는지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성소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에게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주의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능력과 능력을 주시나이다. 찬양은 하나님께. 그래서 성소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소와 그곳의 특정 산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특히 시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65편 1절과 4절, 시편 65편 1절과 4절, 하나님, 찬송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어디? 시온에서. 천국에서는 찬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오 하나님, 찬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우리의 서원이 이루어지리이다.

당신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여 당신 뜰에 살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집, 당신의 거룩한 성전, 당신의 집, 당신의 거룩한 성전, 당신의 성소의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시온에서.

시온에 있는 거룩한 성전. 다음 성소 시편 63편 2절에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뵈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성소에서.

찬양의 자리, 찬양의 자리라는 주제를 이어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으로 언급하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강이 있어 그 시내는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이가 거하시는 성소를 기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모든 곳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구체적이다. 하나님의 성, 성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녀 안에 계십니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그녀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라들은 소란을 일으키고 왕국은 무너진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면 땅이 녹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니라(셀라).

그 왕권 은유가 어떻게 요새와 크고 견고한 탑 개념에 무게를 두는지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하나는 시온 주제인 시편 48편과 비슷합니다. 시편 48편은 만약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시편 48편을 가까이 두고 싶을 것입니다.

시편 48편,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그의 거룩한 산이라는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그 높음이 아름답고 사본의 최고봉이 시온 산 같으니 온 땅이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큰 왕의 성이로다.

왕의 은유가 나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위대한 왕은 어디에 거하시나요? 그분은 사뫼 산이 아니라 시온 산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채에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요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가 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편 52편으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을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48:12부터 14까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읽기에 아름답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이 글을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온을 두루 다니며 그 망대들을 세며 그 성벽을 살펴보고 그 성채들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영원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벽 주위를 걸으며 다음 세대에게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예루살렘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작성한 Get Lost in Jerusale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가상 세계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일이 지금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을 여러 곳으로 데려가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두루 다니고 그 곳을 두루 다니며 그 망대를 세어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50장 2절에 보면,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닌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온에서 이것을 얻습니다. 아름다움이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십니다. 시편 66편 13절과 14절, 다시 시편 66편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아시거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께 서원한 것을 이루리이다. 내 입술로 맹세한 것이요 환난 중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나는 곤경에 처했다. 나는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서약을 이행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그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시편 43장 4절과 다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집.

좋아요. 그래서 이곳은 찬양의 자리이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성전, 찬양의 장소, 성소에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시온,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기록하는 일입니다.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시온, 그분의 거룩한 성전, 큰 왕의 성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시온에서 터져 나와 땅 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차린 것은 초월된 시온 테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빅뱅이론이 된다. 중심이 되어 터져 땅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 상관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시다시피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수께서 여기 계시다, 시온,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땅 끝까지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구의 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견된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찬양의 보편성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넘어 나아가고 싶습니다. 시온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축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성소인 시온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그것의 초월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보편성 구절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과 2절에는 온 땅이여 시온뿐 아니라 온 땅이여 이스라엘 회중뿐 아니라 온 땅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온 땅이 당신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 번 열방이여, 시편 67편 4절과 5절입니다. 민족들이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민족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땅의 나라들을 인도하시는 주여. 오 하나님,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런 종류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교회입니다. 민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시편 68편 32절, 하나님께 노래하라 찬송하라 땅의 나라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마지막 곡은 제가 Matt Hoffland의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시편 57편 5절 11절입니다. 이것은 후렴구입니다. 후렴은 시편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후렴구를 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이 후렴구를 썼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후렴이라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소서. 당신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시온뿐만 아니라 온 땅 위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시편 57장 11절에도 같은 후렴으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시온에는 초월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에게 그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웠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사물에 있어서 완벽했지만, 칭찬과 사물의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입니다. 칭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여기로 이동하겠습니다.

클라우스 웨스터만(Klaus Westerman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묘사적 칭찬, 즉 묘사적 칭찬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행동과 그분이 누구이신가, 즉 그분의 속성, 거룩함,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친절, 자비, 그리고 옛적의 그분의 전능한 행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묘사적 칭찬이라고 합니다. Westermann은 또한 선언적 칭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행위, 즉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에 대해 선언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구체적인 일에 대해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술적 칭찬과 선언적 칭찬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칭찬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64편 9절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66편 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찬양의 내용이다.

66장 3절, 66장 3절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일, 이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세속주의의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과학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일종의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장엄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얼마나 멋진가요? 당신의 힘이 너무 커서 당신의 적들이 당신 앞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시편 65편 6절부터 8절까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의 내용 중 하나가 이런 창조론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사물을 개발할 것입니다. 창조는 다시 창조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창조에 관해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창조는 언제 일어났는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와 창조에 있어서 그의 전능하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에는 송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편 기자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찬양하는 송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모든 일점 일점에 대해 항상 논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시편 65편 6절부터 8절은, 그가 하나님을 지으셨고 주의 능력으로 산들을 지으셨으며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파도하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다를 잔잔하게 합니까?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혼돈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바다는 혼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혼돈과 어둠 등의 신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이 바다를 잔잔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파도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민족들의 소란,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제 내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그게 제자들을 놀라게 합니까? 누가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시편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며, 예수님도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와, 맏소사,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름다운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이 밝아오고 저녁이 지는 곳에서 당신의 경이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기쁨의 노래, 일종의 일출과 일몰을 요구합니다.

일출, 일몰, 한번쯤 들어본 영화 같군요. 일출, 일몰,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그리고 매일 아침의 다채로운 광경을 봅니다. 해가 지는 것과 뜨는 것이 다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창조,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송영,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창조에 대한 섭리의 돌보심을 언급합니다. 시편 65편 9절과 10절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땅을 돌보고 물을 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풍성하게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물에는 물이 가득하여 사람들에게 곡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당신은 고랑에 물을 뿌리시고 능선을 평평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농작물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비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비 문화입니다.

나일강과는 다릅니다. 나일강은 강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를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은 비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칭찬의 기초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

이제 창조와 섭리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행위, 곧 찬양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권능의 행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시편 66편, 시편 66편에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나는 누구의 천둥도 흠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불잡기를 희망하는 David Emanuel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념이나 출애굽 모티브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다섯 편의 시편인 시편 78편과 다른 시편인 시편 105편, 106편, 135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출애굽 모티브인 출애굽 모티브가 구약에서 위대한 구속 행위인 다섯 편의 시편을 전개할 것입니다. .

다윗은 시편에 관한 논문을 썼고, 시편을 통해 출애굽의 울림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아름다운 물건. 다윗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출애굽에 관해 등장하는 모티브와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께 놀리려고 합니다. 시편 66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물을 통과했습니다.

오라, 그 안에서 기뻐하자. 즉, 출애굽으로 인해 물을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행하신 큰 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는 정복에 이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시편 44편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당신 손으로 열방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나이다. 당신은 나라를 몰아내고 우리 조상을 심었습니다.

당신은 백성을 짓밟고 우리 조상을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당신의 오른손이었고, 당신의 팔이었고, 당신의 얼굴의 빛이었습니다.

왜? 당신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야곱에게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에 대한 왕의 승리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야곱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쉘키나 영광, 쉘키나 영광이 시내 산에서 시온 산으로 옮겨집니다.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쉘키나 영광이 시내산에서 시온으로 옮겨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수만, 수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예루살렘 성소에 이르셨느니라.

시편 68편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이것은 더욱 강력한 행위가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왕이시며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이시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외로운 사람들을 가족 안에 두셨습니다. 그는 노래하며 죄수들을 인도하신다.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외로운 사람들을 가족 안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에는 모두 외로움이 있습니다. 가족, 가족의 중요성, 가족의 붕괴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이 깊고 깊은 외로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외로운 사람들을 가족 안에 두셨습니다. 그는 노래하며 죄수들을 인도하시나 패역한 자들은 햇볕에 그을린 땅에 거하느니라. 개인 구원, 하나님께서는 국가나 그런 것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개인 구원도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54편 7절은, 그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음이라, 내 눈이 내 원수들의 승리를 바라보았음이다. 시편 54편 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66편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해 보자. 시편 66편 16절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되 하나님을 높여 주소서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주제가 되었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시편 중 일부는 오 주님, 열방보다 높아지신다는 개념을 지닌 일종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과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찬양의 내용은 죄 용서로 이어집니다. 시편 51편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며, 피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당신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은 희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영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으로 시온을 번영하게 하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밋세바와 범죄한 후에 지은 대참회 시편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시온을 번영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소서. 이 참회 시편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속성을 칭찬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빨리 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전체 강의 자체에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누구시니이까? 사랑하는.

여호와여, 당신은 헤세드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헤세드입니다. 언약의 사랑, 완고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언약의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은 끝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헤세드는 이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헤세드를 받으셨습니다.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거기에 매우 흥미로운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66.3, 하나님께 아뢰어라, 당신의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당신의 힘이 너무 커서 당신의 적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정당성. 시편 71편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오 하나님,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그것은 질문입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미가야.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히 독특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우주에 없습니다.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도 칭찬할만한 일이군요. 온 우주 중에 그분의 형상대로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인류. 놀라운.

이제 정의. 은유는 찬양 중에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됩니다. 찬양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요, 요새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환유이다. 그리고 이름은 우리 문화를 대표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름, 당신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상태와 사물의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현대 예배에 대한 의미와 의미에 대한 네 번째 강연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시끄럽고, 시끄럽고, 풍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나 자신에 대한 자기애적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이 중요한 나르시시즘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밖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수하시는 위대한 왕에 초점을 두는 곳으로 우리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칭찬은 시끄럽고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현재 사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적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 창조, 그의 섭리적 돌보심, 출애굽, 정복,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모든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에 대한 문맹을 갖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마도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칭찬은 역사적 깊이가 부족합니다.

이 찬양에는 여호수아, 사울, 다윗, 솔로몬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과 고대 선지자들의 대출애굽 전통과 정복 전통에 뿌리를 둔 뿌리가 부족합니다. 시편 기자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편 자체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 문맹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을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의 작품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의 작품에 대해 그분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찬양에는 평탄함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전할 뿌리와 그 연속성이 부족합니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성소라는

장소의 중요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그분의 보좌와 우리 삶의 연결, 그리고 온 세계로 나아가려는 이 움직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이것이 그의 세계이다. 이곳은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영광과 능력과 거룩함으로 시온산에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에서 권능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온 땅에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리고 정의롭게 보편성 있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급한 애도는 찬양의 기초입니다.

나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번영 복음이라고 부르는 번영에 대한 일종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편에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탄식 속에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나는 사람들이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슬픔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슬퍼하는 것을 보면 그냥 등을 툭 치면서 “야, 너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빌립보서의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통의 깊이는 영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곳이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그것이 찬양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찬양의 기초이며 애가는 우리의 찬양에 이 풍부한 색조를 부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한 찬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은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왔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악이 있다는 것, 세상에 악이 있고 악에 대한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의 많은 부분에서 악에 대한 관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 좋아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괜찮을 거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악을 이기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 악은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 즉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뭔가가 찰칵 소리가 나더니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시편 42편과 43편이 한 쌍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72편 바로 앞에 시편 71편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신은 찬양의 소망을 갖게 되며 이 찬양의 소망은 실제로 이 일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고 고양시킵니다. 이 내용은 시편 42편과 43편에서 반복됩니다. 이 후렴은 세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는 시편 42편과 43편을 하나로 묶습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장 5절입니다. 같은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어떻게? 왜?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오히려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는 낙담하고 내 영혼은 낙담하고 사람들은 내 속에서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그렇게 시작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오히려 그를 찬송하리로다. 책은 어떻게 끝나나요? 시편 71편은 시편 72편 바로 직전, 거기서 끝납니다.

시편 71편 5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의뢰하는 이시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에게 의지해 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머니의 자궁에서 꺼내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을 노래하거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희망을 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점점 더 칭찬할 것입니다.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측량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이 희망이 끝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시편 42편과 찬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이 모든 하나님 찬양의 바탕이 되는 시편 기자의 열정, 즉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AW Tozer를 읽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앞표지에는 재인쇄된 것이 확실하고 아마도 더 이상 표지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을 찾는 사슴입니다. 인간을 포함해 사막에서 동물을 본 적이 있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42편에서 두 번째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구절이 이 책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열정에서 시작됩니다. AW Tozer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

하나님, 제 영혼도 당신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 내 영혼도 당신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언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이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이 여러분의 영혼에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방금 시편 2권을 읽었습니다. 뭔지 맞춰봐? 다른 네 권의 책이 있는데, 시편과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한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Dr. Ted Hildebrandt)와 시편 제2권에 나오는 하나님 찬양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찬양의 부르심, 찬양의 원인, 찬양하는 방법, 찬양의 내용, 찬양의 장소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